

모든 성인 대축일  
연중 제 31 주일

제1독서 : 묵시 7, 2-4. 9-14  
제2독서 : 1요한 3, 1-3  
복 음 : 마태 5, 1-12ㄱ

# 숲 정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 3)

## 강론

### 성인 조건

조정오 신부/중앙성당

오늘은 ‘모든 성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위령의 날’입니다. 11월 첫째 날은 승리의 ‘천상교회’를 기억하는 ‘모든 성인의 날’로서 희망을 복돋우고, 둘째 날은 ‘단련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위령의 날’로 연결시킨 것은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 지상 ‘여정의 교회’와 함께 세 차원의 교회 신비를 표현하고자 하는 전례적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물이 결실을 거두고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11월에 우리도 먼저 가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인생의 마무리·죽음을 묵상하며, 죽은 뒤 천상 교회의 성도·성인이 될 희망을 꿈꾸며 위령성월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인을 지향하는 공동체요, 우리 모두는 성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 되라”고 분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로부터 공경이 공식 선포되는 시성된 성인이라는 개념과도 구별되지만 세계로 말미암아 ‘어린양이 홀리신 피로 희게 만들어진’ 거룩한 자들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인의 날은 성인들을 본받도록 새 삶을 결단하고 성인들께 전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되도록 희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친절하게도 주님께서는 이 지상 여정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방법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 받는 사람 등 하늘 나라에 이르는 8가지의 길입니다. 이 행복선언의 요지는 가난과 투신에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조건이라고 여겨지는 권력·재력·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그 집착에서 벗어날 때에만 하느님께로 눈을 돌리고 그 가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조목을 묵상하며 나는 성인의 조건에서 무엇이 결여되었는지 점검해 봅시다.

## 소리

### 수다 예찬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수다가 여성들의 전유물인 양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아닌게 아니라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수다로 푸는 경향이 많다. 가령 부부싸움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친구에게 그 과정을 다 털어 놓는다. 처음에는 금방 이혼을 할 듯이 흉을 보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 반성의 단계로 들어간다. 그 다음은 남편 이해의 단계이다.

남을 헐뜯는 수다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수다에는 장점이 참 많다. 수다를 떠는 과정 속에서 감정이 발산되고 수습되며, 문제해결의 길이 열린다. 수다 속에서 자정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독백이 아니라 들어주고 맞장구쳐주는 상대방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수다 떨기를 가정 안으로 끌어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온갖 수다를, 부모는 자녀에게, 또 부부끼리……. 가족끼리 수다를 떨어 집안의 접시가 다 깨진다 해도 아깝지 않으리라.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돈내고 수다를 떠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할 것이고, 술과 폭력으로 푸는 것보다 돈도 힘도 안들고 뒤끝이 깨끗해지니, 이보다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어디 있으랴.

수다를 떨자. 가족끼리 모여앉아 혼연일체가 되어 접시가 깨지도록 떨어보자. 이 위기의 시대에 가족의 수다가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말씀 안에서 행해진다면 더 바랄 나위가 어디 있겠는가.[德]

### 숲정이 산책





1998년 성령의 해

“함께 가요, 우리-자연을 존중하고 오염된 환경 되살리기”

아직도 자연과 깊은 교감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원주민들일 것이다. 미국에 몇 년간 머물 때 나는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가 촬영된 다코다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나는 그들의 전통축제인 파우와우에 참석하여 함께 춤을 추기도 하였고 그들 중 몇몇 가족과는 상당히 가까이 지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놀랍게 다가온 사실은 그들의 내면에 흐르는 정서가 우리의 그것과 매우 같다는 것이었다. 직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서구인들 틈에서도 둥근 원의 완성을 추구하고 있었고, 커다란 북 주위에 둘러앉아 북을 두드리며 저 깊은 뱃속으로부터 노래를 끌어올릴 때면 한 많은 우리의 혼이 그들 안에서 너울거리는 것 같았다.

미대륙의 발견과 함께 무장을 한 서구인으로부터 그들은 숲 속의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삭막한 문명의 세계로 나와야만 했고, 그 건조한 문명세계를 견딜 수 없는 듯 정신적, 물리적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지금도 “개척”과 “진보”라는 이름아래 문명인들이 힘과 생명의 근원인 자연, 어머니인 대지와 숲과 나무들을 마구 파괴치고 잘라내는 것이었다. 산이 깎여나가고 들이 파헤쳐질 때마다, 청정한 나무들이 무참히 잘려나갈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찢어지는 듯 몸살을 했다. 실제로 인디언들은 나무 한 그루에도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원주민들은 일정한 때가 되면 자연의 말을 듣기 위하여 먼 들판이나 산 속으로 홀로 떠난다. 며칠 동안 정신을 모으고 기도하며 마침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인생의 궁극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사람이 되어 내려오는 것이다. 이런 자연은 그들에게 있어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육체를 풀어주며, 마음으로 교감하는 스승이며, 친구이고, 생명의 모태이다.

한 인디언이 이런 시를 썼다.

“내 죽거들랑 내 몸에 어떤 화학처리도 하지 말아주오/ 페인트칠한 관에 나를 넣지 말아주오/다만 저 언덕 높은 곳에 벗은 내 몸을 뉘어/새들과 곤충들, 땅 속의 벌레들이 다 함께 모여/모처럼의 축제와 향연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오/어느 날 바람 불어/남은 내 몸에 솔씨 하나 떨어지고/씩 트고 자라나 새들이 깃들 수 있다면/나는 더없이 행복할 꺼요...”

「지구안의 사람, 사람안의 지구」라는 책에서 정홍규 신부님은 우리가 우리의 지구행성을 파괴했던 탐욕들, 지구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지 못하고 거대한 물질 덩어리로 보았던 어리석음, 기술중심적 사고로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전하고 관리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굶주리고 병들어가고 있으며,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다. 대기는 온실 가스로 질식하고 있으며, 숲과 나무는 산성비로 신음하고 있다. 인간 생명의 젖줄이요 어머니인 강, 바다는 우리를 위협한다. 이제 도시와 농촌의 환경에 있어서 그 뿌리는 모두 죽어가고 있으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죽어가고 있다.” 신부님은 “가슴을 치는 것만으로 지구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다. 공해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생명에 대한 경외와 창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가난으로 창조주를 찬미하는 새로운 영성으로 제삼천년기를 맞이할 것을 호소한다.

기쁘고, 은총의 대희제 2000년 대희년(1998년) 1년 17개월 29일 남았습니다.

**스포렉스 요육센터**  
척추관절 생체교정 요육 디스크, 좌골신경통, 요통, 두통

원 장 임 대 원(요셉)  
물리치료사  
영등동 동초등학교앞(우남상가 2층)  
☎ (0653) 831-2952(사무실)  
831-9326(자)

**웅진출판 주식회사**  
21C 웅진학습 대백과+CD롬 (초·중·고 대상), 웅진곰돌이 (언어·수)통합학습지  
전북 총 사업본부장/탁경희(울리안나)  
☎ (0652)275-6273, 275-6279  
☎ 017-206-8791  
구입문의나 교육사업 함께 하실 분 연락주십시오.

**명성제과제빵 기술학원**  
학력시대는 가고 전문기술자, 자격증시대  
숙성반, 고등반, 주부취미반  
군산, 장항, 서천 차량운행  
☎ (0654) 451-6550  
최 경 수(스테파노)  
군산의료보조조합입구-경포초등학교앞은편

**죽림리조트 유희온천**  
당뇨, 피부병, 신경통 위장에 특효 사우나, 대중탕, 가족탕, 여관

이 불 근(바오로)  
국 장 호(요셉)  
☎ (0652) 232-8832  
(0652) 232-8757



## 서전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무실 225-0396 주임신부 오성기  
F A X 222-4954 수녀원 226-3487 사목회장 심정택

- ◎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요한 11, 26)
- 1. 모임 : ① 레지오 푸리아 - 교동미사 후  
② 구역반장회 - 4일(수) 전 10시  
③ 사목회 상임위원회 - 6일(금) 후 7시 30분  
④ 바오로회, 베드로회, 요셉회, 성모회 - 8일(주일) 교동미사후
- 2. 성화의 달 : 11월 위령성월은 신일구역 성화의 달임.
- 3. 구역별 체육대회 : 오늘 후 1시 30분부터, 해성중 · 교 실내 체육관  
\* 구역별 단합을 위하여 많은 참여바람.
- 4. 성바오로 서원 책홍보 : 책자, 테이프 등을 많이 구입바람.
- 5. 성서와 교리교실 : 4일(수) 후 7시 30분, 제20절 공부
- 6. 성시간 : 5일(목) 저녁미사 중에
- 7. 저녁기도 :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성모상 앞에서
- 8. 예비신자교리 : 매주 주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음
- 9. 고백성사 : 매 미사 전후 20분씩 불 수 있고
- 10. 폐품 수집 : 폐지, 구두, 가방을 수집하고 있음
- 11. 봉헌의식 운동 : 주일헌금은 더 내시고, 교무금은 월납하시길
- 12. 특별헌금 : 금주 봉헌자 - 1명(의명), 1백2십만원
- 13. 금주 전례 : 해설 - 문승욱, 독서 - 이승태(프란치스코) 부부 봉헌 - 장현근(안토니오) 가정
- 14. 차주 전례 : 해설 - 김철, 독서 - 전승중(파우스티노) 부부 봉헌 - 조동원(레오)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2,032,150원 □ 교무금 : 3,035,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274-9261 사무실 274-9260 주임신부 오현택  
F A X 274-9260 수녀원 274-9262 사목회장 유준웅

- ◎ **위령성월!**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 신축성당을 위한 2차헌금, 빈첸시오회비 납부일**
- 1. 금주 모임 : 요아킴회, 안나회 - 공식미사 후
- 2. 주간 모임 : ① 사목회 - 4일(수) 후 8시, 4회의실  
② 제대회 - 5일(목) 전 10시, 유아실  
③ 구역(반)장 모임 - 6일(금) 후 2시, 지하성당  
④ 성모회, 자모회 - 7일(토) 전 10시
- 3. 차주 모임 : 율트레아 - 공식미사 후, 4회의실  
\* 차주 - 사제양성후원회비 납부일
- 4. 요아킴회, 안나의 성지순례 : 2일(월) 전 8시 30분, 나바위, 천호성지
- 5. 예비신자 환영식 : 29일(일) 공식미사 중, 입교신청-사무실  
\* 많은 예비신자를 하느님 앞에 봉헌합시다!
- 6. 조달자 활동준비 : 12월 3일(목) 후 7시 30분, 15일까지 신청바람.
- 7. 부지 헌금 2차신청 감사 : 이효순 10만원, 누계 - 784만원
- 8. 축하 혼인 : 오늘 12시, 성당  
신랑 - 박명신의 장남 박용운(시몬)  
신부 - 김정재의 장녀 김이화(지나)
- 9. 독서 : (새벽)금주 - 안길장, 장미숙, 차주 - 전점동, 최행숙  
(공식)금주 - 김정상, 강영순, 차주 - 이승호, 박기순
- 10. 미사 안내 : 금주 - 성조의 모후Pr., 차주 - 순교자의 모후 Pr.
- 11. 주차 안내 : 금주 - 정의의 거울Pr., 차주 - 모든 성인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 1,975,250원 □ 교무금 : 3,396,000원

**홍머리** 주임신부 288-3872 사무실 287-0441 주임신부 박기준  
수녀원 281-0441 사목회장 최공업

- ◎ **주님, 이런 이야 당신의 얼굴을 찾는 족속이입니다.**
- ◎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선교하는 홍머리 공동체!**
- 1. 금주 모임 : ① 사목회 - 4일(수) 저녁 7시 30분  
② 성모회, 성심회 - 4일(수) 미사 후
- 2. 차주 모임 : ① 대건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② 구역, 반장 모임 - 11일(수) 미사 후  
③ 본당 M·E - 12일(목) 저녁미사 후  
④ 테니스 - 다음주일 후 2시 해성학교  
\* 삼천동 성당과 친선교류
- 3. 오늘은 성소 후원 회비 납부일입니다.
- 4. 축하 혼배 : 오늘 12시 30분  
신랑 - 이석우, (루가)의 장남 이상일(요한)  
신부 - 이춘실의 장녀 이민경(요한나)
- 5. 교리교사 겨울 연수 : 7일~8일
- 6. 초등부 교사 성탄연수 : 14일~15일
- 7. 신축헌금 재 신청 : 김창욱, 박복근, 이봉철, 김연수, 이현희, 신일선, 신필석, 문영역, 최순임, 전영자, 한귀례, 유남이, 은종숙, 이영희, 김태욱, 함께 - 312만 누계 - 3,527만  
\* 감사합니다.
- 8. 군인주일 2차헌금 : 464,700원
- 9. 차주전례 : 해설-박태승, 독서 - 박경화, 이형수
- 10. 청소봉사 : 1, 2구역과 6구역

□ 지난주 봉헌금 : 1,274,750원 □ 교무금 : 1,260,000원

**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서석구  
보좌신부 226-0443 수녀원 223-0715 보좌신부 강영근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영근

- ◎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소계 - 5,150단, 총계 - 898,585단
- ◎ **본당 전화번호부를 발행합니다.** 사무실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고, 광고도 접수중입니다.
- 1. 금주 모임 : ① 천주의 모친Cu - 전 9시, ② 성체강복 - 4일(수) 전 10시 미사 후, ③ 여성분과회 - 6일(금) 전 10시 미사 후
- 2. 봉성체 : 5일(목) 화자모신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 3. 성소후원회 가입과 회비 접수합니다. 4. 사목회 각분과에서는 99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바랍니다. 5. 금년도 교무금을 서둘러 납부하여 주시고, 미납도 신축헌금(중사비 미지불)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지난해 신축헌금 봉헌액 : 900,000원(5세대)
- 7. 박규연(수산나) 일시 귀국 피아노 독주회 : 2일(월) 후 7시 30분 (오스트리아 빈 국립 음대 수석졸업), 장소 -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 신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8. 예비신자 성지순례 : 8일(주일) 장소 - 나바위, 천호성지, 승암산
- 9. 축하 영세 : 21일(토) 후 4시, 특별교리 - 17일(화)~20일(금) 후 7시 30분
- 10. 구역분과 단합대회 : 12일(목) 전 9시 출발
- 11. 축하 혼인성사 : 오늘 12시 30분, 본당, 신랑 - 배명희, 김성일(제) 삼남 김정일, 신부 - 이정빈, 김연씨 장녀 이정하(테레사) 11/8 12시 30분 - 본당 신랑 - 이수원, 이정숙씨 막내 이철현(빅토), 신부 - 양옥자 여사 차녀 김영아(세노피아)
- 12. 차주 : 사목회, 예행회 가입과 회비접수, 성령묵상회, 율트레아, 자모, 성모, 성심회
- 13. 금주 전례 : 해설 - 여태구, 독서 - 김용만, 김은숙, 봉헌안내 - 임창수, 권정희 부부
- 14. 차주 전례 : 해설 - 변효석, 독서 - 김영호, 강남주, 봉헌안내 - 전봉기, 장선자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2,791,260원 □ 교무금 : 2,466,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성우  
F A X 221-9842 수녀원 225-3675 사목회장 서동훈

- ◎ **주님, 이런 이야 당신의 얼굴을 찾는 족속이입니다.**
- 1. 금주모임 : ① 푸리아 - 전 9시  
② 편집분과, 율트레아 - 낮미사 후  
\*성전신축 2차헌금 있음
- 2. 예비신자 교리 : 11월 4일(수), 5일(목) 후 8시
- 3. 예비신자 환영식 : 11월 5일(목) 미사중
- 4. 유아 세례 : 11월 7일(토) 후 2시(초등부 2학년까지 대상)
- 5. 사목회 : 11월 7일(토) 후 7시 30분
- 6. 봉성체 : 11월 4일(수)
- 7. 구역별 연도대회(신 연도실시) : 11월 13일(금) 후 7시 30분
- 8. 차주 모임 : 요셉회, 안나회, 대건회, 자모회 - 낮미사 후
- 9. 청소 봉사 : 11월 7일(토) 사랑하올 모후
- 10. 폐품정리 : 11월 7일(토) 사랑하올 모후
- 11. 화단정리 : 11월 14일(토) 정의의 모후
- 12. 금주전례 : 새벽 - 곡순옥, 낮-이영순, 저녁 - 정인자
- 13. 차주전례 : 새벽 - 유희정, 낮-최정순, 저녁 - 이영숙

□ 지난주 봉헌금 : 1,099,980원 □ 교무금 : 1,688,500원

□ 지난주 신축헌금 : 2,056,000원

**효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서정현  
수녀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해건

- ◎ **오늘 본당을 위한 2차 헌금 있음**
- ◎ **예비신자 인도에 총력을 다 합니다.** 성탄 전까지 1인 1명 이상의 예비신자를 발굴하여 주님앞에 봉헌 합니다(봉헌서는 사무실에 제출요망)
- 1. 지난주 예비신자 봉헌 하신분 : 임영순(테레사) - 1명, 강순영(마리아) - 2명, 유춘자(테클라) - 1명, 박삼택(모니카) - 1명
- 2. 금주모임 : ① 구역봉사자 모임 - 4일(수), 전 10시 30분  
② 사목회 - 6일(금), 후 8시  
③ 성모기사회 피정 - 7일(토), 전 10시~후 3시
- 3. 차주모임 : ① 안나 요셉회 - 8일(주일), 공식미사 후  
② 성모회 - 11일(수), 전 10시
- 4. 성서 교리교실 : 매주(화) 전 11시, 후 8시  
\* 바로 알고 바른 행함을 위한 - 교리교사 양성반
- 5. 환자봉성체 : 4일(수), 후 1시 30분부터
- 6. 쉬는 교우 방문 : 5일(목), 후 7시부터, 삼천주택
- 7. 감사 : 지난 25일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나눔의 잔치에 수고해 주신 여러 교우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8. 이웃 사랑 기금 :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985,000원)  
\* 감사합니다.
- 9.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봉사 - 효자2단지A 구역

□ 지난주 봉헌금 : 1,394,060원 □ 교무금 : 2,203,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께 숲정이를 전달합니다!”